

유의어 분석을 통한 어휘사 연구*

— 1930년대 대중종합지 『三千里』를 중심으로 —

안 예 리**

1. 서론

의미의 동질성을 가지면서 서로 대치시켜¹⁾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의 관계를 유의관계라 하고 이런 유의관계를 맺고 있는 어휘들을 유의어(synonym)라고 한다²⁾. 유의어는 중심 의미가 동질적인 다른 단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³⁾. 그 결과 유의관계를 이루던 어휘들 중 하나가 사라지기도 하고 서로의 의미 영역을 조절해 가며 의미 분화를 이룬 채 유의관계를 지속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유의어들은

* 이 논문은 2011년 2월 19일에 일본 동경외국어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 ‘동아시아 시대의 한국어 한국문화 연구의 동향과 전망’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다듬은 것이다. 학술대회장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임용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하버드 엔칭연구소, 객원연구원

- 1) 유의어 검증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울만(Ullmann, 1957: 108-109)에서 제시한 대치 검증이다. 울만의 논의에서는 어떤 문맥에서든 인지적, 감정적 변화 없이 항상 대치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유의적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라이온스(Lyons, 1968:448)에서는 울만에서 말한 ‘어떤 문맥에서든 대치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인지적, 감정적 변화가 없다는 점’은 구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유의어를 전자의 조건만 만족시키는 것(total synonymy)과 전자와 후자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complete synonymy)으로 구분하였다.
- 2) 이광호(2004:60-61)에서는 유의어에 ‘그 의의들이 중심적인(central) 의미 특성에 관해 동일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우리가 부차적(minor) 또는 주변적인(peripheral) 특성이라고 기술하는 것에 관해서만 다른 어휘항목들’이라 정의하였다.
- 3) 천시권·김종택(1971), 임지룡(1994), 홍사만(2003, 2008)에서는 이를 ‘유의 충돌’이라 부르고, 이광호(1992, 1993)에서는 ‘유의 경쟁’이라 부르고 있다.

의미적 분화와 분포적 분화를 이루어 오다가 결국 두 어휘 사이의 유의관계가 끊어진 채 어휘 체계 안에 존속하게 되는 예들에 해당된다.

새로운 단어가 어휘 체계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은 그와 의미가 유사한 기존의 단어들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변화를 연구할 때 문제가 되는 단어와 유의관계로 맺어진 단어들 각각의 용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 체계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는 연구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⁴⁾.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어휘의 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20세기 초기, 그 중에서도 특히 1930년대의 유의어들에 초점을 두고, 당시의 공식적 유의관계와 그것이 자리한 맥락으로서의 어휘사적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연구 자료가 된 잡지 『삼천리(三千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 연구가 1930년대라는 특정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3절과 4절은 1930년대 유의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유의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의 경쟁 양상을 의미적 경쟁과 분포적 경쟁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3절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쓰이기 시작한 ‘시대(時代)’라는 어휘가 기존의 ‘시절(時節)’과 의미적 경쟁 관계를 이루며 한국어 어휘 체계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며 이 과정에서 일본어 어휘의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4절에서는 분포적 경쟁 관계라는 관점에서 ‘때문’과 ‘까닭’에 대해 논의한다.

4) 국어 어휘사 연구에서 유의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어휘 체계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중세국어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한다. 민현식(1987, 1989), 이광호(1992, 1993, 2003), 홍사만(2003), 남성우(2006)이 대표적이다. 한편 신중진(2005)나 김형철(2010)에서는 개화기 자료에 나타난 신생 문물어나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유의어군을 파악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다루었다.

2. 연구 자료

이 연구의 주된 연구 자료는 1929년 6월부터 1942년 1월까지 발행된 대중종합지 『삼천리』이다⁵⁾. 천정환(2008:205)에서 “월간 종합지로 발간된 『삼천리』는 거의 유일하게 1930년대 전체를 관통하여 발간된 잡지로서 1930년대 조선 사회 제 영역의 변화가 다 담겨 있는 매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13년 동안 총 152호가 발행된 『삼천리』는 식민지 시기 조선 사회를 대표하는 잡지였다.

1930년대는 식민지 조선에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비적 대중문화가 꽃피고 출판·인쇄 문화가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았던 시기이다⁶⁾. 보통교육의 확산과 함께 책 읽는 독자층이 일반 대중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서적과 신문, 잡지들이 출판되었다. 앤더슨(Anderson, 1983/2006)의 논의에서 인쇄자본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가 ‘국가’라는 상상속의 공동체를 대중으로 하여금 현실로서 인지하게 한다고 지적한 것은 한국의 1930년대에 적용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19세기 말부터 한문체 문장을 벗어나 언문일치로 대변되는 문체적 대변혁을 이루려던 수많은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이는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문어의 사용에서 자국어 글쓰기로의 전환’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선각적 지식인들에 의한 근대적 글쓰기의 노력은 1930년대에 이르러 형성된 대규모 독자층을 만나게 된다. 대중 독자층은 당시 이미 일상적 취미가 된 독서를 통해, 일종의 지향점으로서 존재해오던 자국어 기반의 문장 모델을 현실로서 받아들이게 된다⁷⁾.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동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

5) 『삼천리』의 발행인은 시인이자 신문기자, 잡지발행인으로 활동했던 파인(巴人) 김동환(金東煥, 1901-?)이다.

6)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자본주의적 대중문화의 확산과 대중 독자층의 형성에 관해서는 천정환(2003)을, 1930년대 잡지 시장의 과열화에 대해서는 유석환(2009)를 참고할 수 있다.

는 문장, 그 저변에 깔려있는, 채 100년의 역사도 갖지 않는 새로운 문체가 어떻게 일반인들 사이에 확산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할 때, 1930년대는 근대적 글쓰기와 근대적 읽기 문화가 맞물리던 지점, 그리고 새로운 문장 모델이 대중 사이에 확산된 시점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1930년대의 수많은 자료 중 『삼천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잡지가 표방했던, 그리고 실제로 실현했던 ‘대중성’ 때문이다. 창간호의 편집방침에 값이 싸고 누구든지 볼 수 있으며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잡지를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삼천리』는 ‘대중의 취미를 따라가는 상업적인 색채가 강한 잡지(오성호:2001:49)’였다. 하지만 흥미 위주의 가벼운 기사들 외에도 정치, 경제, 국제, 교육, 문화 등 1930년대의 사회 제반 문제들을 다루는 기사들이 상당한 지면을 차지했다. 유석환(2009)에서 『삼천리』의 특징으로 ‘무질서한 혼합주의’를 꼽은 것처럼, 지식인들이 볼 만한 정론적 성격의 기사들과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통속적 기사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주의 전략 덕분에 『삼천리』는 대대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1930년대 언어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갖는 잡지 『삼천리』를 용례 검색과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삼천리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삼천리 말뭉치》는 1929년 6월에서 1941년 1월까지 발행된 총 84호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계, 가공한 원시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는 전부 3,064개의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뭉치의 규모는 2,872,133어절이다.

7) 근대적 글쓰기와 문장 모델에 대해서는 배수찬(2008)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3. 시대(時代)와 시절(時節)

‘시대’와 ‘시절’은 둘 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된 시기를 나타낸다. 오늘날 ‘시대’와 ‘시절’은 고유의 의미영역을 가지고 분명히 구별되어 사용되며 서로 대치시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대’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 역사적으로 구분된 기간을,⁸⁾ ‘시절’은 개인사적 관점에서 일생의 특정한 기간을 의미한다⁹⁾¹⁰⁾.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시절’이 다른 명사와 공기할 경우 ‘시대’는 주로 ‘고려 시대, 조선 시대’와 같이 역사적인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수식을 받으며 ‘시절’은 ‘학창 시절, 유년 시절’과 같이 개인사적 관점에서 구분된

8) 사전에 나타난 ‘시대’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금성판)국어대사전」: ①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일이나 물건과 결부되어 의식되는 한 시기 ②지금 있는 그 시기. 또는, 화제로 삼고 있는 그 시기
- 「조선말사전(학생용)」: 일정한 특징이나 기준에 따라 력사적으로 가른 기간
- 「조선말대사전」: 일정한 특징이나 기준에 따라 가른 력사적기간
- 「연세한국어사전」: 역사적으로 구분된 기간
- 「표준국어대사전」: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
- 「우리말 사전」: 역사적으로 구분한 어떤 기간

9) 사전에 나타난 ‘시절’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금성판)국어대사전」: ①계절 ②일정한 시기나 때 ③사람의 일생을 여럿으로 구분한 어느 한 동안
- 「조선말사전(학생용)」: ①철1 ②사람의 일생의 어느 한동안 ③《일정한 시기나 때》를 이르는 말
- 「조선말대사전」: ①철① ②사람의 일생의 어느 한 동안 ③《일정한 시기나 때》를 이르는 말 ④일정한 대세의 세월
- 「연세한국어사전」: ①(어떤 일을 하기 좋은) 시기나 때 ②[주로 ‘~ 시절’의 꼴로 쓰이어] 사람의 일생의 한 부분. 한동안 ③세상의 형편 ④철, 계절
- 「표준국어대사전」: 일정한 시기나 때
- 「우리말 사전」: ①철1 ②철마다의 날씨 ③사람의 일생을 구분하는 한 동안 ④세상의 형편

10) 위의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절’은 다의어이다. ‘시절’의 여러 하위 의미 중에 ‘시대’와의 대응 관계를 살펴볼 항목은 ‘사람의 일생에서의 어떤 기간’이라는 의미로, 용례의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판정하여 해당 의미로 쓰인 용례만을 추려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대’와 ‘시절’을 어휘사적으로 검토해 보면, 각각의 어휘가 고유의 의미영역을 확립하게 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15~19세기 문헌자료에 나타난 ‘시대’와 ‘시절’

‘시절’은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단어이고 ‘시대’는 19세기 말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단어이다¹¹⁾.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세종역사말뭉치》를 검색해 보면, ‘시절’은 15~19세기 자료에 두루 걸쳐 용례가 확인되는데, (1)과 같이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용법과 같다. (1ㄱ)에서는 여래의 일생에서 태자였던 시기를 나타내며 (1ㄴ), (1ㄷ)에서는 각각 개인의 일생에서 아름다웠던, 어려웠던 시기를 나타낸다.

- (1) ㄱ. 如來 太子스 時節에 나를 거집 사므시니 내 太子를 섬기스보
더 하늘 섬기습 듯흐야 혼 번도 디만흔 일 업수니<1447석보
상,06:004a>
- ㄴ. 역시 차순년은 당성현 사롭이니 저머실 적브터 아버지 섬기를
효도롭더니 미양 아름다운 시절을 만나 반드시 술 고기를 ㄱ
초고 일향 권당을 마자 와 뼈 즐겁게 흐더라<1617동삼호
4,070b>
- ㄷ. 오직 願호으옵은 陛下 | 어려운 시절을 닛디 마르샤 治安혼
날의 警戒호쇼셔<1737어내훈,이,087b>

하지만 역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시절’의 용례들은 (2)의 ‘漢 시절’, ‘宋 시절’, ‘당 시절’, ‘네 한나라 시절’ 등과 같이 역사적인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시절’의 의미영역은 개인사적 시간과

11) 유창돈(1964)의 『이조어사전』에도 ‘시대’는 등재돼 있지 않지만 ‘시절’은 ‘시절, 시절, 시절이 간난하다’의 세 표제항으로 올라 있다.

역사적 시간의 두 가지에 모두 걸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2) ㄱ. 漢 시절 陳州 짜히 혼 효도로은 며느리 나히 열여섯신 제 남
진 여러 즈식 업더니<1517번소학,09,055a>¹²⁾
- ㄴ. 宋 시절 러릉왕 義眞이武帝入 거상에 左右엿 사르물 브려 도
혼 고기 차반을 사다가 집 안에 각버리 브식 밍그라 두고 먹
더니<1517번소학,07,013b>
- ㄷ. 당 시절 덩명진이 군을 거느려 하북을 순회시 밤의 업싸흘 엄
습하야 그 남녀 천여인을 사르잡아 업에서 팔십니를 써나가
너지 젓 나눈 자 구십 여인을 상고하야 다 노하 보내니라
<1758종덕해,상,007b>
- ㄹ. 네 한나라 시절에 부지 國家를 다스려 天下 各省에 두루 돈니
다가<1777소아론,001a>

반면 ‘시대’는 1481년 「初刊杜詩諺解」 권21과¹³⁾ 1613년 「重刊杜詩
諺解」 권21에 동일한 용례가 한 번 출현한 것 외에는 19세기 말까지
다른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 1880년에 발행된 「韓佛字典」에
‘시대’가 표제어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1895년 학부편집국에서 발행
한 소학교용 교과서 「小學讀本」에 (3)과 같은 용례들이 나타난다. (3)
의 용례들을 보면 ‘石時代’, ‘金時代’, ‘鐵時代’와 같이 역사적으로 구

- 12) 학술대회장에서 이 예문을 놓고 이 경우는 ‘며느리’의 일화에 대한 시간적 배경
으로서 ‘漢 시절’이 언급된 것이므로 이는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며느리의 개인
사적 시간 구분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기서의
‘漢 시절’은 며느리의 인생의 시간축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며느
리의 인생이 속해 있는, 개인사 이상의 거시적 시간 구분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
각된다. 만일 ‘漢’이 아니라 ‘유년’ 혹은 ‘소년’ 등의 단어가 왔다면 그것은 며느
리의 개인사적 시간 구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내는
가 역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로 관계에 의한 통합적 의미
해석보다 해당 단어 혹은 명사구가 이루고 있는 세로 관계의 계열적 의미 대응
관계를 우선시하였다.
- 13)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예) 불곤 時代에 將次入 힌 머리 드리니 길히 窮困하야
大闕入 門의 가 우로라 <1481두시초21,009b>

분된 시간을 나타낸다.

- (3) ㄱ. 古代에 스품은 石으로 各色 연장을 지으니 그 ㅅㅅ를 石時代라
 하니라 <1895소학독,061b>
 ㄴ. 人智가 稍進히기에 좃츠 처음 銅鑛을 採掘히여 漸漸 金銀을
 掘取히니 그 三種에 金屬만 貴히 아는 ㅅㅅ는 人智가 아직 中等
 이니 그 ㅅㅅ를 金時代라 하니라 <1895소학독,061b>
 ㄷ. 오직 堅剛한 鐵을 쓰고 器械를 製作게 되지 아니하면 그 나라
 의 富를 더히기 어려우니 스품이 모다 鐵을 貴이 아는 ㅅㅅ를
 이제 鐵時代라 하니라 <1895소학독,061b>

앞서 살펴본 「小學讀本」의 용례들을 보면 ‘시대’가 처음부터 역사
 적으로 구획된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교과서¹⁴⁾
 외의 문헌자료에 나타난 용례들을 통해 볼 때 ‘시대’와 ‘시절’의 의미
 영역이 분화되고 각각의 용법이 확립되는 데에는 몇 십 년 이상의 시
 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된다. (4ㄱ)와 (4ㄴ)는 20세기 초에 발행된 신소
 설에 나타난 ‘시대’의 예이며 (4ㄷ)와 (4ㄹ)는 신문에 나타난 예이다.
 이 용례들을 보면 20세기 초에 ‘시대’가 개인사적 시간 구획을 나타내
 는 데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ㄱ. …일변 늘근 흥치도 니러나서 소년 시대의 생각을 금치 못하
 는 등…<1912행락도,9>
 ㄴ. …나희가 늙어도 그 모양은 청년 시대와 갓흐니라…<1912비
 행선,123>
 ㄷ. …마손학스의 강론한 나팔륜의 청년 시대라 혼거시 두가지
 오…<19090216대한매일01>

14) 「小學讀本」이외에도 19세기 말, 20세기 초기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시대’의 용례
 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모두 역사적인 시간 구획을 나타낸다.

예) 三國時代에 이르러는 日本과 交通이 더욱 頻繁히야…<1907국어독본6,4>

예) 高句麗時代에 楊萬春은 忠義와 智勇이 兼有히야 國家를 尊崇히고…<1908초
 등소학6,6b>

ㄹ. ...와청톤도 청년 시대에 국가에 더한 결심을 꾀하지 굳게 잡
은 고로...<19131003신한민보01>

3.2. 1930년대 ‘시대’와 ‘시절’의 의미

1930년대 ‘시대’와 ‘시절’은 상호 대체가 가능한 유의어였다.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들을 살펴보면 ‘시대’와 ‘시절’ 모두 역사적 시간과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내는 데에 두루 사용되었다. ‘시대’는 (5)에서와 같이 ‘新羅 시대’, ‘舊韓國 시대’로 쓰이며 역사적인 시간을 나타내기도 했고 (6)와 같이 ‘女高 時代’, ‘약혼 시대’와 같이 개인사적 관점에서 시간 구획을 나타내기도 했다.

(5) ㄱ. 그런데 『추석』 명절인 8월 「한가위」는 朝鮮自來의 명절일 뿐 아니라 이 명절은 新羅 시대부터 있어 내려온 것이 사실이다.<1936-11-삼천리08-11-39>

ㄴ. 氏는 咸北 鏡城의 人士로서 舊韓國 時代로부터 많은 社會的 活動을 己任으로 하든 人士이며 間島와 露領에서 20여 星霜을 活動하든 人士이다.<1935-02-삼천리07-02-103>

(6) ㄱ. 이제 金孃의게 하나 特記할 것은 女高 時代에는 運動選手로 이 땅의 人氣를 獨占할 뿐 아니라, 梨專文科 修學 時에는 文藝에 뜻을 두고, 各금, 詩와 散文을 發表한 일도 있다.<1936-06-삼천리08-06-148>

ㄴ. 저는 수십년전 연애결혼이란 일흥도 모르든 태고시절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약혼 시대에도 지금 안해되어 잇는 사람에게 편지라고 써 보지 못하였습니다.<1930-10삼천리02-06-65>

‘시절’ 역시 (7)과 같이 ‘학생 시절’, ‘유년 시절’로 쓰이며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내기도 했고 (8)과 같이 ‘新羅 시절’, ‘舊韓國 시절’로 쓰

이며 역사적인 시간을 나타내기도 했다.

(7) ㄱ. 氏는 학생시절부터 미인으로 명성이 높았다.<1935-07-삼천리 07-06-197>

ㄴ. 그는 바리근교 뉴이리 출생으로, 유년시절부터 음악을 공부했으며, NBC의 이전에는 로스앤젤스 교향악단 등 일곱 개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1941-12-삼천리13-12-48>

(8) ㄱ. 東國輿地勝覽을 찾아 보면 「日長山은 廣州 南 5리에 있으니 일명은 南漢山이라」 하였고 때로이 「日長山城은 新羅 시절의 畫長城인 바 文武王의 축조다.<1940-04-삼천리12-04-110>

ㄴ. 세루로이도가 발견되기 전, 舊한국 시절 이전에 완구를 만드는 工場이 없었고 玩具를 販賣하는 商店이 없었을 때 朝鮮兒童은 機械文明의 生産인 現代의 玩具는 가지지 못했었다.<1941-06-삼천리13-06-114>

이상의 용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30년대에 ‘시대’와 ‘시절’은 의미 영역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뒤섞여 쓰였다. 하지만 용례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각 어휘가 고유의 의미 영역을 확립해 가는 과정, 즉 무질서 속의 질서 또한 포착할 수 있다.

《삼천리 말뭉치》에 나타난 ‘시대’의 용례는 총 2,823개, ‘시절’의 용례는 총 389개로, ‘시대’의 용례가 ‘시절’의 용례보다 7배 이상 많다. 일단 이 수치만을 놓고 볼 때 1930년대에 유의관계를 이루던 이 두 어휘 중 불과 몇 십 년의 짧은 역사를 갖는 ‘시대’가 수백 년의 역사를 갖는 ‘시절’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은 검색된 용례들을 선행 명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파생어를 이룬 경우로 나누어 본 결과이다. ‘시대’는 절반 이상의 용례가 선행 명사의 수식을 받는데 반해 ‘시절’은 절반 이상이 선행 명사의 수식 없이 쓰였다. 또한 ‘시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한 반면¹⁵⁾ ‘시절’은 파생어를 이룬 예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시절’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이 우세였던 반면 ‘시대’는 다른 단어들과 공기 관계를 이루거나 조어과정에도 참여할 정도로 용법이 다양했다.

[표 1] ‘시대’와 ‘시절’의 공기 양상 및 조어적 특징

	시대(時代)		시절(時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선행 명사 수식	1,671	59	145	37
선행 명사 없음	1,078	38	244	63
파생어	74	3	0	0
총합	2,823	100	389	100

[표 1]의 분류 중 의미적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행 명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시대’와 ‘시절’의 의미 영역이 겹치는 용례들이 주로 선행 명사의 수식을 받는 용례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대’는 역사적인 시간의 구분을, ‘시절’은 개인적인 시간의 구분을 나타내 의미적 구분이 뚜렷했다¹⁶⁾. 선행 명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 한해 ‘시대’와 ‘시절’의 어휘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시대’와 ‘시절’의 의미 영역별 쓰임

	시대(時代)		시절(時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역사적 시간	1,192	71	32	22
개인사적 시간	479	29	113	78
총합	1,671	100	145	100

1930년대 ‘시대’의 용법은 역사적인 구획으로서의 시간 단위를 나

15) ‘시대’가 파생어를 이룬 예로는 ‘몰시대적, 초시대성’ 등이 있다.

16) ‘시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가 발견되긴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 ...제 짧은 시대에 돌아가고 십혀 견될 수 업습니다...<1935-07-삼천리07-06-294>

타내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29%의 용례에서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었다. ‘시절’의 경우도 대부분의 용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냈고 22%의 용례에서 ‘시대’와 의미 영역이 겹치며 역사적인 시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때 1930년대 자료에서 확인되는 ‘시대’와 ‘시절’은 전체 용례 중 7할에서 8할 가량은 고유의 의미 영역을 확립해가는 양상을, 나머지 2할 내지 3할 가량의 용례는 의미 영역이 뒤섞이는 혼란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시대’와 ‘시절’의 의미적 경쟁 관계의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역사적인 시간 구획과 개인사적 시간 구획을 실제 용례를 바탕으로 세분화해 보았다. 그 결과 역사적인 시간 구획을 나타내는 용례들은 9가지의 세부 의미로, 개인사적 시간 구획을 나타내는 용례들은 6가지 세부 의미로 분류가 가능했다¹⁷⁾.

먼저 역사적 시간 구획의 세부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3]은 ‘시대’와 ‘시절’이 역사적 시간을 나타내는 용례들을 시대상, 국명, 수장, 단계, 제도, 매체, 기타, 인물, 사건, 연호의 9가지 세부 의미로 나누어 각 세부 의미별 용례의 빈도와 백분율을 보여준다. ‘시대’와 ‘시절’ 모두 용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 세부 의미는 ‘실리주의 시대’, ‘태고난혼 시절’과 같이 특정한 시대상을 나타내는 시기를 일컫는 경우였다. 그 다음으로는 ‘구한국 시대’, ‘신라 시절’과 같이 국명을 나타내거나 ‘손병희씨 시대’, ‘진시황 시절’과 같이 국가나 단체의 수장을 기준으로 시간을 구분한 단위를 나타내는 용례들이 많이 나타났다. 물론 상위 빈도 순위를 보이는 세부 의미의 경우에도 ‘시절’의 용례수는 ‘시대’에 비해 무척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역사 발전의 일반적 단계를 나타내거나 사회 제도에 따른 구분, 당시 번창하고 있던 잡지, 영화 등 대중 매체의 발전 단계, 문학이나 영화계의 흐름

17) [표 3]과 [표 4]에 나타난 의미 분류는 연역적 분류 체계를 잡지 않고 용례 하나 하나에 나타난 의미를 토대로 귀납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세부 의미 분류에도 속하기 힘든 용례들은 ‘기타’로 남겨 두었다.

을 이끌던 주요 인물로 인해 구체되는 시기, 주요 역사적 사건에 따른 구분, 그리고 왕조의 연호에 따른 시기 구분 등이 있었다. 이들 세부 의미에 있어서는 몇몇의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 영역이 겹치는 예들이 발견되었다.

[표 3] 역사적 시간의 세부 분류

분류		예	시대		시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역사적 시간	시대상	실리주의, 로맨틱, 태고난혼...	400	34	14	44
	국명	구한국, 신라, 고려, 로마, 원...	251	21	5	16
	수장	손병희씨, 진시황, 히틀러...	154	13	5	16
	단계	1기, 2기, 상고, 초기, 원시...	124	10	2	6
	제도	정당정치, 도시제도, 로마법...	92	8	0	0
	매체	무성영화, 토-키, 「백조」...	62	5	0	0
	인물	사옹18), 춘원, 이인직, 나운규...	27	2	3	9
	사건	동학, 산업혁명, 갑오개혁...	26	2	0	0
	연호	광무, 융희, 명치	16	1	0	0
	기타	창세기, 태평양, 태평양문명...	40	3	3	9
총합			1,192	100	32	100

3.1에서 살펴본 어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역사적 시간 구획을 나타내는 ‘시절’의 용법은 과거에 ‘시절’이 가졌던 의미 영역이 혼적처럼 몇몇 용례에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표 4]를 중심으로, 거꾸로 1930년대 ‘시절’의 주된 의미였던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에 있어서 세부 의미의 겹침에 대해 알아보겠다. 두 어휘 모두 가장 많은 용례가 집중된 세부 의미는 ‘20여 세 시대’, ‘소녀 시절’과 같이 나이에 따른 구분이었다. ‘시절’의 경우는 약 59%의 용례가 이 세부 의미에 몰려 있었지만 ‘시대’는 용례의 편중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정도에 따른 구분을 나타내는 세부 의미가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여학생 시

18) ‘사옹(沙翁)’은 ‘셰익스피어’를 말한다.

대’, ‘중학 시절’ 등이 그 예이다. 그밖에도 한 개인의 일생을 직장이나 거주지, 직업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결혼을 기준으로 나눈 경우가 있었다.

[표 4] 개인사적 시간의 세부 분류

분류		예	시대		시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 인 사 적 시 간	나이	20여 세, 소녀, 청년, 청춘...	164	34	67	59
	교육	여학생, 중학, 대학, 학생...	138	29	25	22
	직장	동아일보, 경도촬영소, 광문회...	13	3	5	4
	거주지	동경, 북경, 파리, 상해...	61	13	4	4
	직업	사장, 주필, 교수, 군사령관...	36	8	4	4
	결혼	연애, 약혼, 신혼, 재혼...	36	8	3	3
	기타	방랑, 습작, 재야, 순정, 기분...	31	6	5	4
총합			479	100	113	100

‘시절’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내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1930년대의 위와 같은 쓰임은 원래의 의미를 이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시대’는 19세기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표 4]에 나타난 분석 결과는 ‘시대’가 ‘시절’의 주된 의미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표 3]과 [표 4]를 비교해 볼 때 [표 3]에서는 세부 의미 분류 중 ‘시대’의 용례는 나타나지만 ‘시절’의 용례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표 4]에서는 모든 세부 의미에 있어서 의미 영역의 겹침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역사적 시간을 나타내든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내든 총 용례 수에 있어서 ‘시대’가 ‘시절’을 월등히 앞선다는 점, 그리고 ‘시대’의 중심 의미인 역사적 시간의 경우는 의미 겹침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시절’의 중심 의미인 개인사적 시간의 경우는 의미 겹침이 전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또한 [표 1]에서 살펴본 대로 조어에 참여하거나 다른 단어들과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시대’가 훨씬 활발했다는

점, 이 모든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1930년대에 유의관계를 이루던 두 어휘 중 새로 나타난 ‘시대’가 기존의 ‘시절’의 영역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침범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3.3. 일본어의 영향과 한국어 어휘 체계의 정착

지금까지 살펴본 ‘시대’와 ‘시절’의 의미적 경쟁이 시작된 시기는 19세기 말, ‘시대’가 한국어 어휘 체계에 들어왔을 때부터이다. 그렇다면 ‘시대’는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 ‘시절’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

-
- 19) 학술대회장에서 ‘1930년대 자료에서 관찰되는 ‘시대’와 ‘시절’의 의미적 혼용이 글쓴이의 연령대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가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용이하게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가공되진 않았지만 헤더에 기본적으로 필자 정보를 마크업 해 두었기 때문에 후속 작업으로 각 용례별로 필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해 보았다. 이때 용례를 모두 살펴보진 못했고 [표-4]에 제시된 개인사적 시간 구분을 나타내는 ‘시대’, ‘시절’의 용례 중 ‘나이’를 기준으로 시간 구획을 나눈 용례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시대: 164개, 시절: 67개). 즉 ‘소년, 소녀, 청년, 유년’ 등 나이와 관련된 명사에 후행하는 ‘시대’와 ‘시절’의 용례별 필자의 연령대를 조사해 본 것이다. 그 결과 내리게 된 결론은 ‘시대’와 ‘시절’의 의미 영역의 혼란은 연령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작자 미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필자가 복수의 용례에 해당될 경우를 하나로 친 뒤 계량화 작업을 해 보니 ‘시대’의 경우 총 51명의 필자들의 출생 연도가 1856년부터 1914년까지. ‘시절’의 경우는 총 30명의 필자들의 출생 연도가 1865년부터 1915년까지였다.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시대’는 1850년대 1명, 1860년대 3명, 1870년대 4명, 1880년대 9명, 1890년대 12명, 1900년대 22명, ‘시절’은 1860년대 2명, 1870년대 1명, 1880년대 4명, 1890년대 10명, 1900년대 13명으로 두 단어 모두 18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어 선택의 문제보다는 『삼천리』 필진 구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시대’와 ‘시절’의 선택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진 않았다.

‘시대’와 ‘시절’의 사용상의 혼란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柳光烈, 李光洙, 朴基采, 朴仁德, 宋萬甲, 宋鎭禹, 申不出, 尹致昊, 鄭鍾鳴, 丁七星, 崔麟, 洪命熹는 ‘청년 시절’, ‘청년 시대’ 등과 같이 나이에 따른 개인사적 시간의 구분을 나타낼 때 ‘시대’와 ‘시절’을 모두 사용한 반면, 權東鎭, 金東進, 呂運亨 등은 복수의 용례에 모두 ‘시대’만을 사용하였고, 金如山, 朴啓周, 許英肅 등은 복수의 용례에서 모두 ‘시절’만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시대’와 ‘시절’의 선택은 개개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것일까? ‘시대’가 문헌 자료에 널리 나타나기 시작한 19세기 말~20세기 초는 일본어의 한자어 어휘들이 대량으로 한국어에 유입된 시기이다. 그리고 ‘시대’ 역시 한자어 어휘이기 때문에 이 어휘가 일본어의 영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절에서는 그 당시 일본어 자료에 나타난 ‘時代’의 용례를 분석해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할 자료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구축한 《太陽コーパス(태양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는 1895년부터 1928년까지 발행되었던 종합잡지 「太陽」을 토대로 구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나카(田中,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太陽コーパス》에 나타난 ‘時代’의 용례는 총 3,234개이고 ‘時節’의 용례는 121개이다. 용례의 수로 볼 때 당시 일본에서도 ‘時代’가 훨씬 널리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어 자료에 나타난 ‘時代’는 1930년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그리고 개인사적 시간 구획을 모두 나타냈다. (9)는 ‘中古王朝時代, 徳川時代, 舊幕府時代, 平安朝時代, 明治時代’와 같이 역사적 시간 구분을 나타내는 예들이다.

- (9) ㄱ. 中古王朝時代の頃は朝廷に神樂催馬樂などいふ高尙優雅の音楽ありて御神事に用ゐられ。<1895年 01号>
- ㄴ. 徳川時代などでも或時は絹の着物はいけない。<太陽1909年 05号>
- ㄷ. …舊幕府時代の事となして、…<太陽1901年05号>
- ㄹ. 淫靡の風最も盛なりし平安朝時代の當時にも、流石に多少の制裁はありし也。<太陽1901年01号>
- ㄱ. 而して昔の三韓唐に代るに西歐を以てした明治時代の今である。<太陽1909年11号>

다음은 ‘時代’가 개인사적 시간을 나타낸 예들이다. (10)을 보면 ‘中學時代, 大學時代, 少年時代, 幼年時代, 學校時代, 學生時代’와 같이 개인의 일생에서 특별한 시절을 나타내는 데에 ‘時代’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10) ㄱ. 私は中學時代に芳賀君と首席を爭つた事もあつた。<太陽 1925年02号>
- ㄴ. 彼は大學時代にはまづ快活家の方で、よく語りもすればよく笑ひもした。<太陽 1925年01号>
- ㄷ. かう云ふ間に、彼等の少年時代の友情がいつの間にかそこに甦つて來た。<太陽 1917年04号>
- ㄹ. …私は幼年時代に於て隨分艱難辛苦を嘗めたものである。<太陽 1925年05号>
- ㄱ. 私の小學校時代には、私の家は米や酒の商賣をして居たので、…<太陽 1925年07号>
- ㄴ. 私の學生時代の旅行と今日の學生の修學旅行、單獨旅行とは…<太陽 1925年02号>

이렇게 ‘시대’가 역사적 그리고 개인사적 시간 구획을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당시의 한국어와 일본어가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본어 자료에서는 (10)에 나타난 예들이 ‘시절’로 대치되어 쓰인 경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학생 시절’이나 ‘유년 시절’ 같이 쓰이지 않았고 이 경우에는 오직 ‘학생 시대, 유년 시대’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세기 초기 한국어에서는 ‘시대’가 ‘시절’의 의미 영역을 침범하며 의미적 경쟁 양상을 띠었지만 일본어에서는 ‘시대’가 역사적 시간과 개인사적 시간을 모두 나타냈을 뿐 ‘시절’과 유의적 경쟁 관계를 이루지 않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9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가 일본어의 영향이라는 가정 하에 그 어휘사를 기술해 본다면, 한국어에는 원래부터 역사적 시간과 개인사적 시간 구획을 모두 나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어에서 그와 동일한 의미 영역을 가지던 ‘시대’가 19세기 말부터 한국어 어휘 체계에 들어와 두 어휘가 의미적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 점차 ‘시

절'은 개인사적 시간 구획만을 나타내게 되었고 '시대'는 역사적 시간 구획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 영역의 재정립이 일어나며 마침내 '시대'가 한국어 어휘 체계 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착의 결과 '시대'와 '시절'은 더 이상 같은 맥락에서 서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원래 유의관계를 이루던 두 어휘가 의미적 경쟁을 거치며 유의관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의미적 분화를 이루고 제각기 어휘 체계 안에 존속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4. 때문, 까닭

이 절에서는 '때문'과 '까닭'의 두 유의어들을 중심으로 그 선행 성분과의 분포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의미적 경쟁은 앞선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왔지만 분포적 경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언급되지 않는 점이다. 라이온스(1968:449-450)에서 유의어의 선택이 항상 의미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유의관계를 이루는 두 어휘의 경쟁 양상 역시 반드시 의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않는다. 그리고 분포적 경쟁은 의미적 경쟁 외의 여러 요인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때문'과²¹⁾ '까닭'은²²⁾ 모두 어떤 일의 원인을 나타낸다²³⁾. 오늘날

20) 라이온스(1968:450)에서는 유의어의 선택에 작용하는 의미 외의 고려 요인으로 동어반복을 피하려는 경향, 좀 더 짧은 단어나 일상적인 단어를 선택하려는 경향, 고유어를 선호하는 경향, 시의 경우는 라임 등을 맞추기 위한 선택 등을 들었다.

21) 사전에 나타난 '때문'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금성판) 국어대사전」: (명사나 어미 '-기', '-나', '-던' 다음에 쓰이어) 앞에 오는 말이 까닭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말
- 「조선말사전(학생용)」: 앞에 오는 말이 《원인》으로 됨을 나타낸다.
- 「조선말대사전」: (규정이 다음에 쓰이어) 앞에 오는 일의 《원인》으로 됨을 나타낸다.
- 「연세한국어사전」: (앞에 말한 것이) '이유나 원인이 됨, 까닭'의 뜻을 나타냄
-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
- 「우리말 사전」: 어떤 말 뒤에 쓰여 그 말이 가리키는 사물이 다른 말이 가리키

‘때문’과 ‘까닭’은 분포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때문’의 경우는 ‘보험금 때문에’와 같이 명사, ‘너 때문에’와 같이 대명사, ‘사랑하기 때문에’와 같이 명사형 어미 ‘-기’에 후행한다. 하지만 ‘*그런 때문에’나 ‘*사랑한 때문에’로는 쓰이지 않아 관형사나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까닭’의 경우는 ‘사랑한 까닭’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런 까닭에’에서 처럼 관형사 뒤에도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금 까닭에’처럼 명사 뒤에 오거나 ‘*너 까닭에’처럼 대명사 뒤에는 올 수 없고 ‘*사랑하기 까닭에’와 같이 ‘-기’ 명사형 어미에도 후행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가진다. 수식 요소를 중심으로 오늘날 ‘때문’과 ‘까닭’의 분포상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는 일의 ‘까닭이나 원인임’을 나타냄

22) 사전에 나타난 ‘까닭’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금성판) 국어대사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근거나 연유. 소이(所以), 이유.
- 「조선말사전(학생용)」: 원인이나 조건
- 「조선말대사전」: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생겨나거나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이나 조건
- 「연세한국어사전」: 어떤 일이 있게 된 사정이나 이유
- 「표준국어대사전」: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

23) 오늘날 ‘때문’은 선행하는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분류되어 있고 ‘까닭’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독자적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명사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아래의 예들에서와 같이 1930년대의 용례들을 보면 ‘때문’과 ‘까닭’ 모두 선행하는 요소의 수식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두 단어 모두 명사였다고 볼 수 있다.

예1) 이 글을 나는 천하의 명문이라고 믿는다. 때문에 이 서한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무수한 글월 가운데서 가장 나를 생각케 한 하 나인 까닭으로써이다.<1938-10-삼천리10-10-72>

예2) 그러나 또 한 번 휘돌아보게 되는 때 나는 엉성한 나무들이 만히 서있는 아래에 안근 젊은 사나회를 발견했습니다. 까닭이 잊혔든지 잊었든지는 몰으나 나는 그 사나회가 나 젊은이였음을 무한히 깃버했었습니다.<1932-04-삼천리04-04-87>

[표 5] 오늘날 ‘때문’과 ‘까닭’의 선행 수식 요소

	명사	대명사	-기	관형사	-은/는/던
때문	○	○	○	×	×
까닭	×	×	×	○	○

이처럼 오늘날 ‘때문’과 ‘까닭’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²⁴⁾. ‘때문’은 명사적 요소에만 후행하고 ‘까닭’은 관형사적 요소에만 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문’과 ‘까닭’의 분포가 위의 표에서와 같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4.1. 19세기 문헌자료에 나타난 ‘때문’과 ‘까닭’

앞서 살펴본 ‘시대’와 ‘시절’의 경우 문헌자료에 처음 나타난 시기가 몇 백 년 이상 차이를 보였지만 ‘때문’과 ‘까닭’은 둘 다 19세기 말~20세기 초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역사말뭉치》에서 검색해 보면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자료에서는 용례가 검색되지 않았으나 유창돈(1964)의 「이조어사전」을 보면²⁵⁾ ‘까닭’의 경우는 혜경궁 홍씨(1735-1815)가 남긴 「閑中錄」 566쪽에 ‘상소흔 깻다으로’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한불자전(1880)」에 보면 ‘깻둑’의 대응 한자로 ‘故’가, ‘썩문’의 대응 한자로 ‘緣故’가 실려 있으며 그 곡용형으로 ‘깻둑에, 깻둑으로’, ‘썩문에, 썩문으로’가 제시돼 있다. 이 두 어휘가 모두 당대의 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에 이미 널리 사용되던 것으로 생각되

24) 의미적 유의성을 가진 두 어휘가 분포적으로 상보적이란 것은 유의어 검증의 대표적인 방법인 ‘대치 가능성’에 위배된다. ‘때문’과 ‘까닭’처럼 의미적으로 볼 때는 상호 함의 관계를 이루는데 분포에 있어서 상보적인 어휘들의 관계는 그렇다면 유의 관계가 아닌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올만(1957)에서 제시한 이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치 가능성’이라는 검증 조건이 결국 의미적 관계를 분포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유의어 검증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25) ‘때문’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지만 19세기 말에 발행된 사전 이외의 문헌자료에는 ‘까닭’의 용례만 몇몇 나타날 뿐 ‘때문’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은 「천로역정(1894)」에 나타난 ‘까닭’의 용례이다.

- (11) ㄱ. 저 두 사람 식둑에 저즈가 요란흐매<1894천로역,하,114b>
 ㄴ. 그디가 나 식둑에 걱정을 만히 흐엿스매 장려 조흔 일이 잇
 스리라<1894천로역,하,168a>
 ㄷ. 내 등에 짐이 무거운 식둑에 전과 갓치 저희들과 함피 질거
 워홀 수 업노라<1894천로역,상,016b>

(1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말에 ‘까닭’은 (11ㄱ)와 같이 명사 뒤에도 올 수 있었고 (11ㄴ)와 같이 대명사 뒤에도 올 수 있었으며 (11ㄷ)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뒤에도 올 수 있었다. 이 중 오늘날과 분포 조건이 동일한 것은 마지막의 (11ㄷ)뿐이다. 이어서 1930년대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때문’과 ‘까닭’의 분포적 경쟁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4.2. 1930년대 ‘때문’과 ‘까닭’의 분포

1930년대에 ‘때문’과 ‘까닭’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않았으며 동일한 문맥에서 상호 교체가 가능했다. (12)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나 때문에’는 ‘나 까닭에’로 교체가 가능했으며 ‘무슨 까닭’은 ‘무슨 때문’으로도 쓰였다. 또한 명사형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도 ‘있기 때문에’, ‘있기 까닭에’ 그리고 ‘밋는 때문이다’, ‘밋는 까닭이다’로 교체시킬 수 있었다.

- (12) ㄱ. 어서 가야 할 것인데 나 때문에 미안해요...<1938-12-삼천리 10-12-246>
 ㄱ'. 어머님은 정말 나 까닭에 마음이 상하신다.<1941-07-삼천리

13-07-130>

ㄴ. 첫사랑과도 같이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는 것은 무슨 때문일
까.<1940-12-삼천리12-10-238>

ㄴ!. 꽤 재미있게 읽었는데 갑자기 중지되는 무슨 까닭입니
까!<1932-03-삼천리04-03-53>

ㄷ. ...그렇게 안 하면 더 폐롭고 귀찮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
게 한다는 것을...<1942-01-삼천리14-01-109>

ㄷ!. 단지 妻가 잘못된 일이 있기 까닭에 남편에게서 이러한 욕을
얻어먹는 것은...<1941-04-삼천리13-04-207>

ㄹ. ...우리 문학 전체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반발할 필
요보다도 어울닐 필요를 더욱 만히 가져야 올흔 것을 맞는
때문이다. <1930-04삼천리02-02-24>

ㄹ!. 左翼民族主義者는 우리의 雰圍氣 內에서 動함으로 우리의
陣營 內에 吸收될 것이라고 맞는 까닭이다. <1931-04-삼천리
03-04-12>

이처럼 분포에 있어서의 미분화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천리 말뭉치》에서 추출한 ‘때문’과 ‘까닭’의 용례들을 선행 요소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분류 기준으로는 [표 5]의 분포 조건에 조사 ‘-의’ 뒤라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²⁶⁾. 1930년대 ‘때문’과 ‘까닭’은 명사, 대명사, 명사형 어미, 관형사, 관형사형 어미, 조사 ‘-의’ 뒤에 모두 나타나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이 두 유의어가 상보적으로 분포하는 양상과는 대조적이다.

26) 전체 용례 중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조사 ‘-의’에 후행하는 ‘때문’의 용례는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예) 『人民의, 人民의 때문에, 人民에 依해서의』<1929-09삼천리01-02-5>

예) 그 결과는 이른바 東亞 문로주의의 수립의 때문인 것이요<1936-02-삼천리 08-02-41>

[표 6] 1930년대 ‘때문’과 ‘까닭’의 선행 수식 요소

선행 요소	때문		까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명사	899	29	26	1
대명사	269	9	134	6
-기	1,725	55	52	2
관형사	18	1	231	11
-은/는/던	221	7	1,685	79
-의	12	0	4	0
총합	3,144	100	2,132	100

하지만 분포의 뒤섞임이 반드시 무질서하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표 6]의 수치를 들여다보면, ‘때문’의 경우는 명사, 대명사, 명사형 어미에 90%가 넘는 용례들이 집중돼 있고 ‘까닭’의 경우는 관형사와 관형사형 어미에 역시 90%가량의 용례들이 몰려 있다. 결국 1930년대 ‘때문’과 ‘까닭’의 분포상의 혼란은 각각 10% 이내의 범위에 한정될 뿐이었던 것이다.

5. 결론

19세기 말~20세기 초는 흔히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는 과도기적 시기로 불리며 이 시기의 어휘나 문법에 대해서도 ‘과도기적 양상’을 띠는 언급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기만을 과도기로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사회 전반 변화가 그러했듯 언어에 있어서도 극적인 변화와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한국어는 안정된 체계를 위주로 기술하는 것보다 체계가 흔들리는 양상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그 당시 언어 현실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는 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의 한국어를 대상으로, 새로운 어휘의 유입과

그로 인한 유의어 간의 경쟁 관계를 ‘시대’와 ‘시절’이 보였던 의미적 경쟁과 ‘때문’과 ‘까닭’이 보였던 분포적 경쟁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 영역이 겹치던 유의어쌍이 의미 분화와 분포적 분화를 통해 한국어 어휘 체계에 정착해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과정에서는 대량의 전자화된 언어 자료인 말뭉치를 사용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당시 어휘 체계에서 보이던 혼란상을 단순한 혼란이나 과도기적 용법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적 혼란 속에서도 포착되는 일종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글은 몇몇 어휘들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에 불과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보다 확장시켜 적용한다면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20세기 초기의 어휘적 변화와 어휘 체계 변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민현식(1987). “한국어 부사에 대한 연구: 중세국어 부사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61, 201-248.
- 민현식(1989). “「더브러」 관련 유의어에 대하여», 『국어학』(국어학회) 18, 153-174.
- 신중진(2005). “開化期에 新生한 “電” 관련 어휘에 대하여», 『한국어학』(한국어학회) 29, 61-88.
- 유석환(2009).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 『사이』(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6, 239-271.
- 이광호(1992). 「국어 유의어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1993). “형태적 동일성에 따른 유의어의 변화», 『수련어문논집』(수련어문학회) 20, 117-149.
- 이광호(2003). “중세국어의 통시적 변화를 통한 현대국어 유의어의 변화 예측», 『우리말글』(우리말글학회) 29, 173-190.
- 천정환(2008).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36, 204-235.
- 田中牧郎(2005). “言語資料としての雑誌『太陽』の考察と『太陽コーパス』の設計”. 國立國語研究所編, 『雑誌『太陽』による確立期現代語の研究』. 博文館新社, 1-48.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영식 편(2002). 「巴人 金東煥誕生 100周年紀念集」, 도서출판 선인.
- 김인호(2005). 「조선말력사의미론」, 사회과학출판사.
- 김종택(1992).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 김형철(2010). 「국어 어휘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남성우(2006). 「16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박이정.
- 박영순(199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배수찬(2008).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논설문의 성립 환경과 문장 모델 중심으로」, 소명출판.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심재기(2000). 「國語 語彙論 新講」, 태학사.
- 오성호(2001). 「김동환: 한 근대주의자의 행로」,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광호(2004). 「국어 어휘 의미론」, 월인.
- 임지룡(1994).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천시권 · 김종택(1971). 「국어의미론」, 형설출판사.
- 천정환(2003). 「근대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 홍사만(2003). 「국어 어휘의미의 사적 변천: 유의어의 의미 기술」, 한국문화사.

- 홍사만(2008). 「국어 의미 분석론」,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편집실(1991), 「조선말사전(학생용)」, 연변교육출판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유창돈(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글학회(2005). 「우리말 사전」, 글나래.

- Anderson, Benedict(1983/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Verso.
- Eugene A. Nid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semantic structures*. Hague: Mouton.
- Lyons, John(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 Ullmann, Stephen(1957), *The Principles of Semantics*. 2nd. ed. rev. Glasgow: Jackson ; Oxford: Blackwell.

원고 접수일 : 2011년 2월 21일

원고 수정일 : 2011년 3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4월 28일

Abstract

Study on Lexical Change Through an Analysis of Synonyms

An Yelee

(Yenching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lexical changes in 1930s Korean with *Samcheolli* Corpus (1929-42), focusing on the words in synonymous relations. There was a sudden emergence of new words i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Korea as the traditional society went through rapid shifts which can be summarized as modernization. Some words were coined and some words were adopted from foreign language. The advent of this neologism initiates the lexical system changes as it competes with other words which have a similar meaning. We explore this synonymous competence in terms of meaning and distribution. Chapter 3 discusses the relations between the existing word *sijeol* and newly adopted word from Japanese, *sidae* and how *sidae* intruded the meaning of *sijeol* and settled down in Korean lexical system. Chapter 4 explored newly coined words *ttaemun* and *kkadak*. These two words emerged at the same period and shared their distributions. However, *ttaemun* and *kkadak* reestablished their relations in terms of distribution while they share the same meaning.

Key word: Synonym, Lexical Change, *sidae*, *sijeol*, *ttaemun*, *kkadak*

핵심어: 유의어, 어휘사, 시대, 시절, 때문, 까닭